

FTSE Russell, 한국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 당초 계획대로 추진 예정

- 반기 리뷰에서 韓 국채 '26.4월부터 WGBI 단계적 편입 일정 재확인
- 예정대로 편입 이행이 확인됨에 따라, 채권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FTSE Russell*은 미국 동부 표준시 10.7.(화) 16:00(한국시간 10.8.(수) 05:00), 「'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September 2025 Review Results Announcement)를 발표하였다. FTSE Russell은 이번 하반기 반기별 검토를 통해, 지난 '24.10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과 '25.4월 韓 국채 WGBI 편입 방식 결정 등에 대해 재확인하였다.

* FTSE Russell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S&P Dow Jones, MSCI, CRSP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market indices) 산출기관 중 하나

**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5~3.0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

FTSE Russell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26.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하면서, 한국 국채의 원활한 지수편입("frictionless index inclus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및 투자자, 시장 인프라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Inclusion will be phased-in over an eight-month period, in eight equal monthly tranches, commencing with April 2026 index profiles and completed with November 2026 index profiles. ... FTSE Russell intends to continue to engage in close collaboration with investors, market infrastructure providers and the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to ensure a frictionless index inclusion and continues to welcome feedback from market participants on their readiness activities in preparation for the change.*

아울러, FTSE Russell은 '25.10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8%*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국가별 WGBI 편입비중(% , 韓편입시) : ¹(美)40.9 ²(中)10.1 ³(日)9.2 ⁴(佛)6.5 ⁵(伊)6.0
⁶(獨)5.2 ⁷(英)5.1 ⁸(스페인)4.0 ⁹(한국)2.08

이번 검토는 FTSE Russell이 기존 상반기 리뷰('25.4월)에서의 편입 결정 사항을 재차 확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26.4월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라는 점에서 향후 변동 없이 예정대로 편입이 이행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며, 우리 국채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한국 국채 투자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 점검·보완하여 '26.4월 실제 WGBI 편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한국 자본시장에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국제 금융국 국제 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하다애 (daae0517@korea.kr)
	국제 금융국 외환제도과	책임자	과 장	도종록 (044-215-4750)
		담당자	사무관	박세웅 (loneilia@korea.kr)
	국고국 국채과	책임자	과 장	이근우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이찬호 (realbrown20@korea.kr)